시 론

'길 위의 김대중'과 광주

김 영 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3월16일 노무현재단이 마련한 영화 '길 위의 김대중' 특별 상영에 함께 했다.

그런데 이 날은 역사적으로 좀 특별한 날이었다. 2002년 3월16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후보 광주경선에서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노무현후보가 승리한 날이다.

광주시민은 광주정신을 버리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을 따랐던 노무현을 선택했던 것이다. 역시 민주주의 광주였다. 이 놀라운 사건은 노무현의 바람이라는 '노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지는 민주정부 재창출에 성공했다.

취임 첫해 2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노무현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바로 5·18 광주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정부입니다'라고 천명했다.

3월16일은 광주가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기 시작한 날이다. 그래서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은 노무현과 오버랩 되면서 더욱 가슴 깊이 다가 왔다.

목포 하의도로부터 시작된 영화는 식민지와 전쟁, 분단과 독재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에서 도전과 투쟁, 저항정신과 지도력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헤쳐 온 위대한 정치인 김대중의 삶을 추적하고 조명했다.

긴장을 더해 가며 가슴을 후비던 영화는 김대중 납치 투옥 가택연금에 이어 마침내 박정희 독재의 붕괴와 80년 민주화의 봄, 신군부의 김대중의 내란죄 투옥과 사형선고에 이르러 극적인 좌절과 분노를 일으킨다.

특히 투옥중 외부에 차단되어 아무 것도 모르다가 6월 중순이 되어서야 신문을 보고 광주 5·18의 참상을 알게 되고 아파하는 김대중을 보며 영화를 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눈물이 터지고 흐느낌이 여기저기서 새어 나왔다.

필자 역시 청춘 학생으로 목격했던 광주학살의 참상과 민주화탄압의 옛 기억이 몸서리치는 슬픔으로 다가와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세계 각 곳의 김대중 구명운동과 미국 망명, 마침내 조국으로의 귀국과 직선제개헌 투쟁이 불붙인 민주화 투쟁,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희생 속에 타 오른 6월 항쟁은 전두환 독재를 심판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1987년 9월 8일에서야 광주에 방문하고 망월묘지를 참배한다. 그 때 쏟아져 나온 광주역 주변의 수많은 광주시민은 민주주의의 희망을 갈구하고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었고 이어진 망월묘역 참배의 김대중 대통령의 오열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가깝다. 잠시 진정되었던 극장 안이 다시 함께 오열하는 눈물과 흐느낌이 가득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는 목포에서 시작해 중앙정치로 나갔지만 결국 광주에서 그 정점을 그었다. 만약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없었을 것이다. 역시 김대중 대통령을 빼고 광주를 이야기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서슬 퍼런 독재시절 해태타이거즈 전용 야구장에서 김대중을 연호하던 광주시민과 김대중의 정서적 연대와 일체의식이 이해가 될 것이다.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은 후속편을 예고하며 여기에서 끝난다. 아직 김대중의 대통령으로 성공을 보여주지 않은 가운데…. 참으로 대단한 영화다. 한국의 현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장대한 서사를 가장 압축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보여준 최고의 다큐영화다.

영화를 제작한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안 보신 분들께 꼭 보시라고 권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음 편의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부활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그가 만들어 낸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두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광주, 광주시민들의 찬란한 역사가 그랬듯이 이제 다시 부활하는 봄이 오길 바라는 희망과 다짐을 나누고 싶다.

기 고

순환경제사회와 '넷-제로(Net-Zero)'

박 송 인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공학박사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있다. 이 패러다임은 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이로운 면이 있지만 반면에 폐기물의 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1980년부터 Zero Waste(쓰레기 제로)를 시작으로 1991년 분리배출제도, 1993년 폐기물 예치금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2003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0년대 제품 생산, 유통, 소비단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 단계로 되돌려 가장 안전하게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돼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국제사회 중심 기류인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골자로 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2024년 1월1일 시행됐다. 이 법의 주된 목표는 자원 생애주기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 관리, Zero Waste 추구, 자원 소비와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법적으로 규제한 것이다. 순환경제사회란 환경보전과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1992년), 교토의정서(1997년), 파리협정(2015년) 채택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해 논의해 왔다. 우리나라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활동 외에도 2021년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2023년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전자, 자동차 등 9대 산업의 9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CE(Circular Economy)9을 제안했는데 이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뜻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20년 10월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을 '1회용품 없는 축제로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도내 22개 시·군의 대표축제 1개 씩을 선정해 1회용품 없는 축제로 치르기로 했다.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량이 많은 식품 업계에서는 다과 포장에서 많이 사용되던 플라스틱 재질의 완충재와 용기를 종이로 변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65% 절감 가능한 플랙소 인쇄 기법을 사용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 증가 등 다양한 정책이 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시행 중이다. 맘카페나 소모임 중심으로 개인이 '탄소중립 생활실천 수칙'을 지키도록 독려하는 이벤트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과 넷-제로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개인 모두가 노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법적 기반을 조성해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자체인 전남도는 자원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제품 생산 등 전 과정에서 재사용·재활용·재제조 등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개개인은 휴지, 핸드타월, 물티슈를 대신해 손수건을 사용하는 작은 생활 습관부터 실천해야 한다.

사회의 모든 일들은 구성원들의 헌신과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과 넷-제로 실현은 결국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에 달렸고 그 실현 여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독자투고

'오늘도 변화 중인 악성사기'…스스로 주의해야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여러 가지 범죄 중 경제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라고 말한다.

악성사기 범죄들은 조직·반복적이며 피해자는 성별, 연령 모두 무관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보이스 피싱, 전세·보험 사기, 사이버 사기 등 종류와 수법도 다양하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알면서도 피해를 입는 악성사기 수법을 알아보자.

첫째, 보험·사이버 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기다. 보험사기는 사무장병원 또는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입원, 과다진료, 조직적인 공모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사기는 가짜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물건을 판매해 수익을 가져가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기는 원금을 초과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다.

둘째, 불법 사금융 사기는 금융위 등 관계기관 등록 없이 운영하는 미등록 영업,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일삼는 불법 채권추심,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고리사채 등 신·변종 대출 행위를 일컫는다.

코로나 기간에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고 금리 상승기에 따른 대출금리 증가세로 불법추심, 미등록 대부업이 꾸준히 증가해 피해가 증가했다.

셋째, 보증금 미반환 관련 깡통전세와 갭투자 사기다. 깡통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능력이 없거나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갭투자는 여러 사람이 공모해 전세 보증금 매매가격 이상인 주택을 자본금 없이 거래해 보증금을 가로챈다.

악성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앞다투면서 예방 홍보를 하고 있으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예방과 홍보를 아무리 하더라도 사기꾼의 유창한 입담과 본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맞물려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면 꼼짝 없이 피해를 입게된다.

상대가 고의적으로 금전을 노리고 다가올 때 순간 경각심을 갖지 못해 적절한 대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날이 변화 중인 악성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스스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정원·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대의 실천 계기 되길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19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념행사 준비에 돌입한다.

올해 슬로건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오월이 되자는 내용과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각종 위기를 뛰어넘을 힘이 되는 하나되는 오월을 만들어 가자는데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이날 출범식 행사는 예년과 비슷하게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선언문 낭독, 5·18민주묘지 합동 헌화·분화, 참석자 발언, 44주년 전야행사 주제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호남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에 참석해 행사를 함께할 예정이어서 5·18민주화운동이 또 다른 의미로 새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44돌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난립해 있던 5·18 관련 각종 조례를 통합하고 집대성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물론 광주시가 흩어져 있는 조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숙제 등을 집대성한 가칭 '5·18정신계승 기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5·18통합 조례안이 빠르면 다음달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이전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5·18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5월 단체들의 분열과 갈등은 스스로 대외적인 신뢰도와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손을 맞잡고 민주주의 대의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이 "5·18이 민주주의를 위한 대의를 실천하는 한편 이번 행사가 5·18 관련 단체들 간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했으면 한다.

25대 광주상의 회장 '지역경제 봄날' 견인해야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선출된다. 당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春分)이자 상공의 날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계절이 돌아왔지만 지역경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건설업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악화일로를 걸으며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나 다름없다. 즉 봄은 왔지만 진정한 봄이 아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연상케 한다. 이처럼 얼어붙은 지역경제계를 이끄는 수장인 광주상의 회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그만큼 지역민이 거는 기대는 크다. 이번 광주상의 선거는 1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다. 출사표를 던진 김보곤·한상원 후보는 지역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지역 곳곳에 설파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회원이 주인되는 회원 중심의 광주상의 운영, 세대와 업종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 구현,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의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광주경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종합경제단체로 재탄생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광주 군공항 부지 미래산업 유치, 양대노총 산업평화선언,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 한전 경영 정상화 , RE100 정책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광주상의 지역경제 핵심 정책기구로 격상 등을 내세웠다.

제25대 광주상의 회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청년 인구 유출,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직·간접적으로 조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급속도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광주상의 회장도 이를 해결하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상의회원들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리더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지나면 지역유일의 종합경제단체인 광주상의의 새로운 수장이 탄생한다. 급변하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리더의 진면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5대 광주상의 회장이 '지역경제의 봄날'을 이끌어 나갈지 주목된다.

그래픽 뉴스

日 "北 발사 탄도미사일 3발, 350㎞ 비행…北에 엄중 항의"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18일 오전 7시 44분께 탄도미사일 2발, 오전 8시 21분께 1발을 각각 발사했으며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북한의 서쪽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3발이 모두 최고 고도 약 50㎞로, 북동쪽으로 약 35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와 관련해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팀을 꾸려 정보 수집과 피해 확인 등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며 "미국,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 분석에 노력하면서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일본 내 선박 등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여러 발을 발사했다"며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항공기와 선박 등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북한이 황해북도 상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